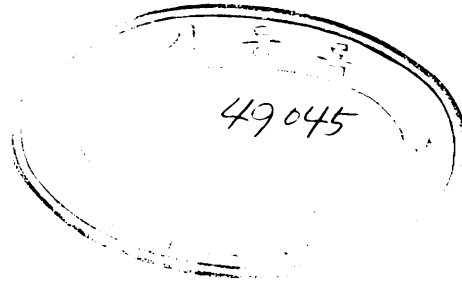


17  
528.2  
07880

碩士學位論文

# 완도에 정착한 제주해녀의 생애사



濟州大學校 大學院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社會學科

梁 元 洪

1998年 12月

# 완도에 정착한 제주해녀의 생애사




指導教授 庾 喆 仁

梁 元 洪

이 論文을 文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梁元洪의 文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郭 大 奎   
委 員 김 진 영   
委 員 庾 喆 仁 

濟州大學校 大學院

1998年 12月

**Life Histories of Cheju Female Divers  
Who Have Lived in Wan-do Island**

**Won-Hong Yang**

**(Supervised by Professor Chul-In Yoo)**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S**

**DEPARTMENT OF SOCIOLOGY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1998. 12.**

## 목 차

I. 서 문 .....	1
1. 연구목적 .....	1
2. 생애사 연구 .....	3
3. 자료수집 .....	5
II. 제주해녀의 바깥물질 .....	7
III. 바깥물질 나간 해녀의 현지생활 .....	12
1. 물질작업 .....	12
2. 문화적 차이와 적응 .....	15
IV. 정착한 해녀의 삶 .....	19
1. 해녀의 가족배경 .....	19
2. 작은 부인으로서의 삶 .....	21
3. 고향과 객지 .....	28
V. 결 문 .....	33
<참 고 문 헌> .....	37

## SUMMARY

Cheju female divers are typical seasonal casual laborers, who used to leave from Cheju Islands and stay temporarily in mainland Korea, Japan, or Russia in order to dive without the aid of air apparatus, gather marine products there, and make a good sum. While most female divers return home after their work outside Cheju Islands, some settle down and have lived there. This thesis examines, through their life histories, the lives of seven Cheju female divers who have lived in Wan-do island even after they finished their contracted dive-work there.

Most Cheju female divers in Wan-do left for outside diving after their husbands or fathers had died. They have stayed there partly because there is no householder of their family left behind in the homeland, Cheju Islands. They have lived in Wan-do as a concubine called "a small wife." The fact that they were raped or had an intimate relationship with a man in Wan-do may be another reason why they decided to stay there. Some have been supported financially by their husbands, which is a concubinary life-style in mainland Korea. Others have made a living by themselves with their diving, which is a concubinary life-style in Cheju Islands.

Generally speaking, Cheju female divers in Wan-do have adapted to local life-styles. They talked about Wan-do, the place to live in, however, as a strange place. Some still thought of the family of their first husband in Cheju Islands, as their family-in-law. They said that they would return to

their family-in-law, that is, their homeland as an ancestor after they died. Their life histories show that they resigned themselves to their fate as a marginal person.



# I. 서론

## 1. 연구목적

오늘날 제주도는 세계적인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하나의 '섬'인 제주도는 그 지리적 여건상 육지부로부터 고립되어 언어와 풍습이 타지방과 달라서 제주문화의 독특성이 곧잘 거론되곤 하였다. 관광지로 육성되기 시작한 1960년대 이후, 제주도는 유배지와 변방의 섬에서 돌하르방과 해녀로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다.<sup>1)</sup>

세계적으로 독특한 직업 집단인 제주해녀는 제주사회의 발전에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커다란 영향력을 끼쳐왔다. 해녀사회의 특질은 곧 제주사회의 특질로 인식될 수 있으며, 여성인 제주해녀의 경제력은 '육지부'와는 다른 남녀관계에서 제주여성의 자립적인 기질과 정신을 형성하여 왔다.

'섬'인 제주도는 바다에서의 생산이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과거 제주도의 경제가 수산업에 크게 의존하였던 사실을 보아서도 알 수 있다. 수산업은 지금도 제주지역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3차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정책에 밀려 수산업은 사양길에 접어들고 있다. 다만 수산물 가공이나 양식업이 새로운 수산업종으로 등장하고 있다.

오늘날의 양식장이나 양어장과 같은 현대적 기계시설과 동력선이 갖추어지지 않았던 과거의 제주도 수산업은 제주도 연안을 무대로 해산물을 채취하였던 해녀들의 생산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다. 현재 제주도의 해녀들은 고령화 현상을 보이며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이들에 의한 생산력은 아직도 수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sup>2)</sup>

---

1) 잠수(潛搜)를 두고 일컫는 말은 여러 가지이다. 제주도가 관광지가 되면서, 해녀(海女)라는 말이 더욱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호칭을 둘러싼 여러 논의가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해녀라는 말을 사용하고자 한다.

2) 제주도, <제주도지>, 제2권, 1993, 수산업 편 참조.

제주해녀는 비단 육지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러시아(블라디보스톡)까지 진출하여 '바깥물질'(出稼)을 하여, 가족을 부양하고 가산(家産)을 일구었다.<sup>3)</sup> 그리고 지금도 제주도와 일본을 오가며 물질을 하고 있는 해녀들이 있다. 제주도에서 물때에 맞춰 물질을 하던 해녀들은 제주도에서의 물질기간이 끝나면 일본으로 건너가 다시 물질을 하다가 돌아온다.<sup>4)</sup> 일본에서의 물질은 물때가 따로 없기 때문에 일정기간을 두고 그곳에서 물질을 하다가 되돌아오는 것이다.<sup>5)</sup> 이처럼 해녀들의 바깥물질은 지역적 경계나 국경을 넘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바깥물질이란 일정기간을 두고 타지로 물질을 나가는 것으로서 대개의 해녀들은 한두 번씩의 바깥물질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여성들이 외지로 나가 바깥물질을 하는 것은 전통적(유교적)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다. 따라서 바깥물질을 나가는 해녀들을 적극성과 진취성 및 개방성의 특질을 가진 여성들로 생각하거나 개혁자의 표상처럼 생각하기도 한다.<sup>6)</sup> 그러나 그들이 바깥물질을 나가게 되는 배경과 현지에서의 물질 경험에 대한 이해가 따른다면, 이러한 신화화(神話化)를 피할 수가 있다.

애초에 바깥물질을 나갈 때에는 목돈을 마련하고 귀향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지만, 일정기간 동안 체류하며 물질하던 현지에 남아 지금까지 정착하여 살고 있는 제주해녀도 있다. 제주해녀가 바깥물질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동하는 것은 경제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동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또한 현지에 정착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바깥물질을 직업집단의 이동으로도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바깥물질을 나갔던 해녀들이 귀향하지 않고 현지에 정착하며 살아온 사례들을 연구하여 이들의 정착과 체류에 따른 사회적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물질은 바다속에 들어가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일을 일컬어 해녀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말로 잠수(潛水)를 뜻한다. 바깥물질이란 제주도 바깥에서 하는 물질을 가리키는데, 통상 일제시대부터 사용되어 온 출가(出稼)라는 말로도 일컬어진다.

4) 바다면의 높이는 달의 궤도에 따라 주기적으로 달라진다. 물때란 조수간만의 차에 의해 생기는 조류의 변화를 가리키는 말이다.

5) 유철인 "제일 제주인과 제주도"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학술세미나 <해외동포사회의 현재와 미래> 발표논문, 1998.

6) 김영돈 외, <제주의 해녀>, 제주도, 1996.



바깥물질을 나갔다가 현지에 정착한 해녀들은 타지(他地)인 현지와 고향인 제주도와 관계를 맺고 있다. 남편과 자식들이 있는 현지는 생활터로서, 그리고 부모와 형제가 있는 제주도는 고향으로서 현지에 정착한 해녀 개인의 삶에 모두 의미있는 곳이다. 자신이 태어난 곳과 지금 살고 있는 곳에 대해 부여하는 의미는 현재의 생활터에 정착하게 되는 과정과 현재의 삶을 이야기하는 태도와 과정 중에서 드러나게 된다. 자신의 생애이야기에서 자신의 의지에 의한 선택이었는지, 혹은 어쩔 수 없이 정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는 고향에 돌아갈 수 없는 상황과 같은 맥락이다-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는지에 따라서도 현지에 정착한 해녀 개인은 고향과 현지(타지)에 부여하는 의미는 다른 성격을 띠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현지에 정착한 제주해녀들의 삶의 맥락으로서 바깥물질이 이루어진 역사적인 배경과 바깥물질을 나간 해녀들의 현지생활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그들의 구술생애사를 통해 바깥물질을 나갔다 현지에 남게 된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많은 제주해녀들이 바깥물질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현실에서 현지에 남게 된 상황을 그들의 가족적 배경과 '작은 부인'으로 살게 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셋째, 그들이 현재 살고 있는 삶의 근거지와 고향인 제주도가 그들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그들의 구술생애사에서 그들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해석하고 있는 지를 살펴볼 것이다.

## 2. 생애사 연구

생애사는 한 개인의 지나온 삶을 자신의 말로 이야기한 기록이다.<sup>7)</sup> 인간의 삶은 항상 특정한 사회적, 역사적 상황 속에 처해있기 때문에 한 개인의 삶은 그 특정한 사회적, 역사적 상황과 맞물려 있기 마련이다. 한 개인의 지

7) 유철인, "생애사 연구에 있어서의 사회의 역사와 개인의 삶의 문제," 제 26차 한국문화인류학회 전국대회 발표논문집(1994. 5, 영남대학교), 1994, p. 74.

나온 삶에 대한 이야기인 생애사는 사회와 역사에 대한 개인의 해석뿐만 아니라 문화와 역사가 한 개인의 삶에 어떻게 각인되어 있느냐를 보여준다.

사람은 누구나 독특한 개인이며 동시에 자신의 사회나 문화를 드러내 보일 수 있다.<sup>8)</sup> 따라서 생애사연구에서는 자기의 삶을 이야기한 사람이 얼마나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사람인가에 대한 논의보다는 특정 개인의 전기적 자료들이 가지는 주관성의 타당함을 강조하고, 주관적인 경험에 근거한 삶과 사회 및 역사에 대한 해석과 이해에 도달할 것을 강조한다.<sup>9)</sup> 특히 그동안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소외되고 소홀히 취급되어 왔거나 왜곡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나 삶의 주관적인 의미를 전달해 준다.<sup>10)</sup>

생애사의 수집은 기본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생애사를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 나아가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리학, 사회학, 인류학 등의 생애사 연구문헌을 보면 일정한 틀이 잡혀 있지는 않다. 이는 생애사 연구가 방법의 축과 주제의 축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이다.<sup>11)</sup> 방법의 측면에서는 자료수집으로부터 생애사를 재구성하고 해석하는 방법까지, 주제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의 확인에서부터 주체의 의미부여까지 연구자의 관심이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나 생애사 수집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보다 중요한 이유는 생애사가 기본적으로 말하는 사람의 주관적 산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말하는 사람의 주관성과 즉흥성을 해치지 않는 한도에서 수집방법의 틀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틀에는 객관적인 틀과 주관적(해석적)인 틀이 있다.<sup>12)</sup> 객관적인 틀에서는 아동기, 청소년기, 성년기, 중년기, 노년기 등 생애과정(life course)의 단계나 학교, 성관계, 일탈행위, 가족의 위기, 직업, 결혼, 질병 등과 같은 생애과정에 따른 경험에 대하여 면접을 통해 여러 사람의 생애사

8) 위의 논문.

9) 윤희숙, "생애사 연구의 발달과 방법론적 쟁점들," 배종무총장퇴임기념사학논총, 1994, p. 516.

10) 위의 논문, p. 516.

11) 아리스에 겐, "생활사 연구의 시각", <일상생활의 사회학>, 박재환, 일상성·일상생활연구회편, 도서출판 한울, 1994.

12) Denzin, N., <The Research Act>, Third edition,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89.

를 수집한다. 주관적이며 해석적인 틀은 구술하는 사람의 주관성에 초점을 둔다. 이러한 생애사 연구방법의 핵심은 구술하는 사람의 경험과 경험의 의미에 의존하게 되므로, 연구대상자의 경험에 따라 그리고 연구자의 경험에 따라 해석적인 틀은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인 틀로 수집된 제주해녀의 생애사를 통해 구술한 개인의 경험을 이해하려고 한다. 다시말해 구술한 개인들을 통해 그들이 속한 집단의 특성을 일반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다. 즉 주관적이며 해석적인 틀로 수집된 생애사에 대한 연구는 어떤 집단에 대한 개인의 대표성에 초점을 두지 않고, 한 개인의 삶의 맥락을 제시하고 그를 사회나 문화 속에 자리매기는 작업이 생애사 분석의 핵심이 된다.<sup>13)</sup>

### 3.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는 1991년 6월과 1997년 4월, 두차례에 걸쳐 전라남도 완도군 군내리를 방문하여 수집하였다. 완도는 지리적으로 제주도와 가까운 위치에 있으며, 일반적으로 제주도의 해녀들은 이곳에서 한두 번씩은 물질을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것은 교통수단의 문제로 인해 귀향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가정을 희석시킨다. 그리고 제주도와 왕래가 빈번한 이곳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그들의 삶에서 바깥물질과 정착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으리라는 가정을 해볼 수 있다.

현지에 정착한 해녀들의 생애사를 수집하기 위해 전라남도 완도를 방문해서 현지의 해녀들과 레포를 형성하였다.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행여 고향에 자신이 살아온 인생이 노출되기를 꺼려하는 해녀들이 많기 때문에 조사자와 웬만큼 친해지지 않으면 쉽게 구술하기가 어렵

13) 유철인, "생애사 연구방법: 자료의 수집과 텍스트의 해석", <간호학탐구>, 제7권 1호, 연세대 간호정책연구소, 1998.

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연구를 위해 몇 차례의 전화를 통해 조사자의 목적이나 신원을 밝힌 후 재차 방문을 하며 해녀들의 생애사를 들을 수 있었다.

완도군 군내리에는 현재 20명의 해녀가 있지만, 물질을 하고 있는 사람은 15명에 불과하다. 이 중 바깥물질을 나와 정착한 제주해녀는 7명이고, 나머지는 소완도에서 물질을 배운 지방해녀들이다. 제주해녀 7명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1>과 같다. 조사 당시의 연령층은 40대에서부터 70대에 걸쳐 다양하며, 모두 20년 이상 완도에서 거주하고 있었다.<sup>14)</sup> 그들이 낳고 자란 마을의 변면을 살펴보면, 제주도 전 지역에서 완도로 바깥물질을 나왔음을 알 수 있다. 물질을 시작한 나이와 완도에 정착한 나이는 바깥물질을 나오게 된 배경과 정착과정에 따라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표-1> 면접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성 명	현재의 나이	출신지	물질을 시작한 나이	완도에 정착한 나이	완도 거주기간
O씨	73세	함덕	13세	26세	47년
G씨	46세	제주시	17세	26세	20년
C씨	58세	서귀포	28세	31세	27년
K씨	62세	우도	10대 초반	32세	30년
H씨	63세	용수	10대 초반	19세	44년
Y씨	50세	남원	18세	20세	30년
J씨	45세	우도	10대 초반	12세	33년

14) 본 논문에서는 현지조사(1997년) 당시의 나이를 그대로 기입하였다.

## II. 제주해녀의 바깥물질

제주 해녀들의 활동무대는 제주연안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의 바다까지 뻗어 있었다. 일본 곳곳에 나가던 제주 해녀의 수는 상당했고, 중국의 칭따오(靑島)나 따리엔(大連)까지, 멀리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까지 나갔었다.<sup>15)</sup> 해녀들이 바깥물질을 나가기 시작한 것은 19세기말경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sup>16)</sup> 해녀들의 채취물이 경제적 효용가치가 높아졌던 당시는 제주가 물물교환경제에서 시장경제로 변환되는 시기였다. 해산물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고 따라서 시장의 수요를 위해 해녀들의 능력을 사들인 고용주들에 의해 제주도 이외의 지역으로 나가게 된 것이다. 기록으로 남아있는 최초의 바깥물질은 1895년의 일이다.



부산의 한 해조류상인의 요구에 의해 적은 수의 제주해녀들이 부산 앞 옥도라는 작은 섬에서 우뚝가사리를 채취했다. 이들의 첫 출가는 성공적이었고 그들을 이용하여 돈을 벌려는 자본주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한반도 주위 바닷속의 해조류의 채취는 그 이전부터 일본 해녀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었는데 이들의 작업시간은 제주해녀들에 비해 짧았다. 따라서 해녀들을 고용하여 이익을 남기는 자본주들은 당연히 제주 해녀들을 선호하였다. 제주 해녀의 한반도 출가 이후 점차 일본해녀들은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오히려 제주의 해녀들이 일본으로 물질을 떠나게 되는 역현상마저 일어났다.<sup>17)</sup>

제주 해녀들의 바깥물질이 이루어진 것은 해녀들이 채취한 해산물의 수요와 이것이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이들의 노동을 사는 고용주들의 출현으로

15) 김영돈 외, 앞의 책, p. 434.

16) 위의 책; 윤희녕, Toward reviving the myth of woman's land, 1997.

17) 윤희녕, 위의 논문.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일제에 의한 식민지 지배로 해녀의 활동도 일본의 지배로 인해 크게 영향을 받게 되었다. 1908년 한일간의 어업협정이 맺어지면서 일본은 조선 바다에 대한 침입을 합법화했다.<sup>18)</sup> 그리고 협정이 맺어진 시기에 조금 앞서 제주 해녀들은 1903년에 일본으로 바깥물질을 다니고 있었다.

일본 어업자들은 여러 그물, 발동선, 잠수기 같은 도구, 그리고 해역관리, 조합설립, 어업면허와 벌금, 판매경로 등 제도화된 근대어업을 도입하고 조선바다를 일본 시장경제로 편입했다. 제주도 근해에서는 특히 전복과 소라가 풍부하다. 제주도 사람들이 원래 테우라는 배나 몸 하나로 하는 잠수 작업을 하고 있었다. 식민지 지배 때문에 자기 바다에 대한 일본의 관리/통제를 받았다. 바다에서 나오는 물건[해산물]은 현금상품화가 되었다. 그 가격을 결정하는 권리는 일본사람이 쥐고 있었다. 그러나 제주도 사람들은 현금수입 때문에 바다로 가게 되었다.<sup>19)</sup>

바깥물질을 가는 것은 소득을 올리기 위한 목적 때문이다. 고향인 제주도에 어장이 한정돼 있었고, 채취할 해산물도 무한정일 수 없다. 전도금(前渡金)을 미리 받아서 가계(家計)에 이바지한다든지, 목돈을 마련해 낼 수 있는 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해녀들이 바깥물질을 나가게 되었다.<sup>20)</sup>

이와 같이 해녀들이 바깥물질을 나가게 되는 이유는 자녀들의 학비 마련, 용돈, 대사(大事)의 경비 조달 등 그 용도는 제각각이었다. 미혼 여성인 경우는 시집갈 혼수를 자신이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하여 바깥물질을 나간 해녀들은 1934년도에 약 5천명 이상에 달했고 이들에 의한 어획고는 약 70만원이었다. 당시 도내 연안에서 작업하였던

---

18) 이지치 노리코, “제주도에 살았던 이야기,” 제주대학 사회학과 대학원 콜로키움 발표문, 1997.

19) 윤희영, 앞의 논문.

20) 김영돈 외, 앞의 책, pp. 435~436.

사람들이 5천 5백명이었고 이들의 어획고는 27~28만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바깥물질을 나간 해녀들이 섬의 경제에 미친 영향은 대단한 것이었다.<sup>21)</sup> 감귤농사와 관광산업이 아직 발달하기 전이었던 당시에 수산업 부문에서 바깥물질의 경제적 기여도가 70%를 넘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더구나 섬인 제주도에서 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수산업에서도 해녀들에 의한 경제적 기여도는 감귤과 관광에 의한 산업구조의 변화가 이루어진 지금까지도 제주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sup>22)</sup> 한 개인으로서 복돈을 마련하기 위한 바깥물질이 지역경제로 끼치는 영향은 개인의 삶이 사회성을 띠고 있으며, 구체적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벌이를 위해 물질을 나갔던 해녀들은 대부분 귀향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들이 바깥물질을 나가는 것은 경제적으로 더 윤택한 삶을 꾸리기 위한 것이 지배적이었으며, 결혼을 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바깥으로 물질을 나가는 것은 바로 그런 측면이 강했기 때문이다. 바깥물질을 나가는 해녀들은 물질 나갈 때 동아리로 나가며, 그 동아리마다 대체로 반장을 둔다.<sup>23)</sup> 1960년대와 1970년대는 제주도에서 물질이 왕성하던 때로 이 시기의 바깥물질을 나간 해녀의 수를 살펴보면 <표-2>와 같다.

<표-2>에서 보듯이 해녀들이 바깥물질을 제일 많이 한 곳은 경상북도 지역이다. 두 번째는 경상남도이고, 그 다음이 지리적으로 제주도와 가장 가까운 전라남도이다. 이런 사실로 비춰볼 때 바깥물질이 많이 이루어지던 초기에는 해녀들이 지리적 조건에 구애받음 없이 물질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점차 해녀의 수가 감소함과 마찬가지로 바깥물질을 나가는 해녀들도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경상북도와 경상남도 지역으로 바깥물질을 나가는 해녀들은 크게 줄어드는 반면, 지리적으로 가까운 전라남도는 상대적으로 감소의 폭이 그다지 크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다.

1962년에 경상북도로 바깥물질을 나간 해녀의 수는 1,584명이었고, 경상남도는 이보다 조금 작은 1,356명이었다. 같은 해 전라남도는 232명이었

21) 위의 책, p. 438 참조.

22) 안미정, "제주해녀의 이미지와 정체성"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p. 12.

23) 김영돈 외, 앞의 책, p. 442.

다. 그러나 10년 후인 1972년 경상북도는 약 85%가 감소하였고, 경상남도는 약 81%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전라남도는 32%의 감소에 불과하다.

〈표 - 2〉 한반도로 바깥물질을 나간 해녀의 수 (단위: 명)

구분 연도별	계	지 역 별				
		경남	강원	경북	전남	기타
1962	4,090	1,356	787	1,584	232	131
1963	2,215	696	125	1,320	71	3
1964	2,071	378	165	1,354	108	66
1965	1,538	258	113	1,049	56	62
1966	1,903	338	188	1,103	143	131
1967	1,909	788	129	635	248	109
1968	1,093	159	81	654	84	115
1969	1,167	457	145	216	282	67
1970	1,023	239	-	85	188	511
1971	1,230	302	166	126	284	352
1972	917	264	104	249	158	142
1973	867	254	64	199	238	112

자료: 제주도청 수산과.

(김영돈 외, 〈제주의 해녀〉, 제주도, 1996, 443쪽에서 재인용)

제주도의 해녀는 계속 감소 추세를 보여왔다. 한 때 제주도내의 해녀는 제주도 여자인구의 20% 내외를 유지하여 왔으나, 1965년부터 1995년까지 30년 동안 약 4분의 1로 감소했다. 그리고 1995년에는 제주도의 15세 이상 여성인구 중 약 3%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낮아졌다.<sup>24)</sup> 이처럼 감소 추

24) 안미정, 앞의 논문, p. 8.



세를 보이는 것은 제주도의 산업정책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감귤산업과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하려는 개발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제주도의 여성인력이 이들 산업영역으로 흡수되었기 때문이다.<sup>25)</sup> 그리고 현재는 새로 물질을 배우려는 여성들이 없어 제주의 해녀는 감소됨과 동시에 노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 고령의 해녀들은 대부분 물질이 왕성했던 1960년대 이전에 물질을 배웠던 세대들이다.

지금도 개별적으로 바깥물질을 나가는 해녀들이 있지만, 해녀 자체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실정에서 바깥물질을 나가는 경우는 드문 편이다. 해녀들은 물질이 매우 힘든 일임을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물질을 하는 이유는 당장의 현금소득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물질을 할 수 있는 마을 앞바다가 있어서 농사일을 병행하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성을 떨 수 있었던 것이다. 복돈 마련을 목적으로 바깥물질을 경험하였던 해녀들은 지금 이미 중년을 넘어선 고령의 해녀들이다. 바깥물질을 나가는 해녀의 감소는 과거와 같이 대어섯 명씩 동아리를 지어 바깥물질을 알선하였던 선주들이 사라졌고, 지금은 지역의 어촌계에서 마을 앞바다를 관리하고 통제함으로써 타지 해녀들의 물질을 제한하는 人漁관행이 새롭게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타지로 나가던 제주의 해녀들이 지역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농사와 관광산업 부문으로 흡수됨으로써 물질소득보다 더 많고 다양한 소득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과 떨어져 있어야 하는 바깥물질을 하지 않게 되었다. 거기에다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높아졌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된다. 그러나 과거와 같은 모습의 바깥물질은 많이 사라졌지만 지금도 개인적으로 육지나 일본으로 바깥물질이 이루어지고 있다.

---

25) 위의 논문, p. 8.

### Ⅲ. 바깥물질 나간 해녀의 현지생활

#### 1. 물질작업

조천 함덕 출신인 O씨(73세)는 1950년대에 약 3년 동안 해녀모집일을 했었다. 그녀의 전남편이 군대를 가자 시집살이가 싫어서 육지로 나왔다. 그녀가 한 일은 약 20명 내외 단위로 해녀들을 모집하여 선주에게 알선하고 자신도 물질을 하며 바깥물질을 하는 해녀들이 귀향할 때까지 인솔하는 것이었다. 그녀의 두 번째 남편은 자신이 해녀를 모집하여 주었던 선주였다. 어떤 사람들이 물질을 나오는 지에 관해 물었을 때, “뜨네기들, 시집가 살림사는 사람들… 여기 와서 한 5개월 6개월 되면 내가 또 인솔해가서, 육지 와서 물질하면 바람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부모들한테 허락받고… 인솔자가 똑똑하지 못하면, 그래도 바람나지만…” 그녀는 물질하러 왔다가 바람난 여자들이 많았다며 그것은 여자들의 행실이 바르지 못한 탓으로 보고 있었다. 자신이 모집해온 해녀들에게서는 그런 일이 없음을 비교하여 인솔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녀는 다른 해녀들이 선주에게 돈을 떼었던 일들이 많았다며 자신은 조금 단위로 계산을 하여 남의 돈을 굴리면서라도 계산을 마쳤다고 한다. 그녀가 인솔했던 해녀들은 도민증을 선주에게 주지 않았으며, 도민증을 선주가 악용하였던 사례들이 많았다고 하였다.<sup>26)</sup>

“전도금을 써오면 꼼짝 못해. 선주가 허랜 허민 허고, 말랜 허민 말고. 보내주랜 허민 보내주고, 제주도애 가서 안움직한 사람은 안 보내주고, 다신 못가지. 도민증도 돌아가카부덴 다 압수하고, 우린 도민증을 [선주에게 맡기지 않아] 자유로 왔다가 자유로 가고… 부모네 아팠덴 허민 또 보내주고…” 그녀가 인솔해온 해녀들은 모두 다 제주도로 돌아갔지만 그녀가 생각할 때

26) 도민증(道民證)이란 지금의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것으로, 6·25 동란 직후 국내질서가 혼란하게 되자 도민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발급되었다. 1962년 <주민등록법>이 제정됨에 따라 도민증 제도는 없어졌다.

‘돈을 미리 썼거나 바람난 여자들은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한다. 바깥물질을 하는 해녀들은 전도금을 미리 받아 가게에 보태기도 하였고, 자신이 계약기간동안 물질작업을 할 것을 보장하기 위한 방도로써 도민증을 계약자에게 보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미리 받은 전도금과 계약자에게 맡긴 도민증은 바깥물질을 나간 해녀들이 계약자에게 구속되는 결과를 낳았다.

영세한 해녀들에게 객주들은 이른바 前渡金을 내준다거나 하면서 어장에 일정기간 입어할 약속을 치르는데, 곧 계약이 이뤄진다. 찌든 삶에서도 自立·自助를 생활신조로 살아가는 제주 해녀들로서는 제 힘으로 마련되는 전도금이 대단히 소중하다. 家計에 크게 이바지할 것은 물론이지만, 일단 前渡金을 받아 계약하면 出稼가 끝나고 회계가 마무리 될 때까지 그 해녀는 인술자에게 얽매이는 실정이다.<sup>27)</sup>



이와 같이 전도금은 해녀자신에게 혜택을 주기도 하였지만 오히려 해녀들을 움아매는 울가미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전도금을 주고 해녀를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은 선주나 객주(모집인)들이었다. 당시에는 제주도의 각 지역별로 어촌계가 조직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모집인이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바깥물질을 권유했었던 것이다.

완도에서의 물질은 물때를 맞춰 하게 된다. 보통 하루에 네 다섯시간 작업을 하게 되는데 제주도와 다른 점은 그들이 작업할 수 있는 바다가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제주도 마을의 어촌계와 달리 완도는 일정 지역을 일정 기간 동안 개인들이 돈을 모아 바다를 국가로부터 사게 된다. 해녀들의 표현대로는 “동네로부터 바당을 산다”고 하는데, 이것은 국가와 일정 기간 동안 계약하여 바다 사용에 대한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이다. 바다를 산 개인들만이 그 바다에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출자하지 못한 사람들은 물질할 수 있는 바다를 얻을 수 없다. “일이천도 아니고 일억 넘어가고 칠팔천 넘어가

27) 김영돈 외, 앞의 책, 437쪽.

니까 돈 어신 사람은 못 따라가고, 못 사난 못 다넘니께.” “돈 어신 사람들 조금씩 별명 애기를 교육시키당 보난 그 여유가 어신 사람은 못 사십주게. 우리 같은 사람은 애기를 서넛 교육시킨다고 하다보난 집도 절도 어신…” 보통 ‘큰바당’이라고 하는 비교적 넓은 바다는 1억3천만원 정도로 개인당 천만원 정도씩을 출자해야 바다를 살 수 있다고 한다. 이렇게 하여 물질을 하여 잡은 물건(해산물)에 대해서는 개인과 집단이 4-6제로 나눈다.

“만원 별면 사천원 우리가 먹고, 이만원 번 사람도 있고 십만원 번 사람도 있고 거기도 여러 가지. 자기능력에 따라 개인별로. 그러면 이것을 4-6제로 나뉘요. 십만원 별면 사만원이고 만원 별면 사천원이고. 6할은 다 모아, 모아 가지고 [우리끼리] 꼭 같이 나뉘.” 4-6제는 사만원을 개인이 가진 다음, 6만원을 꼭 같이 나누기 때문에 결국 모두가 비슷하게 가지는 셈이 된다.

그러나 제주도 출신의 G씨(46세)는 나이는 해녀들은 “그전에 바다를 안 사도 다니명 했는데, 전부 다 소완도 사람하고 젊은 사람들이 바다를 돈 쥐서 사니까, 그런디도 못 따라다니고 있다”고 하였다. 바깥물질을 나왔다 현지에서 살고 있는 해녀들은 “비싼바당”에는 “나이 드신 분은 돈이 없어” 다니질 못하고 있었다.

제주도에는 현재 각 지역별로 어촌계가 조직되어 있다. 어촌계는 해녀들이 채취하는 각종 해산물을 수집하고 판로를 담당하고 있는 조직이다. 이들 어촌계는 다시 지역별 수산업협동조합의 하부단위가 된다. 마을별 어촌계는 해녀들의 생산활동 단위이다. 제주도 내에서 물질이 비교적 왕성한 지역에서는 어촌계 산하에 해녀회가 따로 조직되어 있다. 그리고 이 해녀회의 활동은 물질작업뿐만 아니라 마을의 경조사를 함께 돌본다든가 친목회를 결성하는 등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어떤 형식으로는 해녀들의 물질과 관련된 조직은 정착한 해녀들에게서도 발견되었으나 현재는 거의 사라지고 있었다.

서귀포출신 58세의 C씨는 해녀들의 단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무 것도 어수다. 해녀계도 어수다. 옛날에 단체로 하다가, 옛날에 몇 년전에 … 향우회 조직했다가 한 5, 6년 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다 돌아가시고, 다 늙고, 뒤치다꺼리 못해서 해지되불고. 그 전엔 딱 해녀들 못들어오게 할라고

회비 받고 하다가, 노인들이 그렇게 안한다고 다 나눠주라고 해서 다 나눠줘 버리고, 해녀단체란 건 하나도 어수다.”

타지에서 물질을 하며 해녀회를 조직하여 살았던 정착해녀들은 현재 친목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소사같은 일이 생겼을 때 서로 돕는 정도의 왕래는 하고 있었다. 해녀회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사라지게 된 것은 해녀들의 고령화 현상과 맞물려 있다. C씨는 계속하여 말하기를, “형편이 안됐어요. 다 늙어 갖고, 칠십 일곱, 칠십 여섯, 그런 분들이 빚을 합니까. 젊은 때 하던 일이라 손놓지 못하고 따라 다니는 것뿐이고…” 현재 제주도의 해녀들과 마찬가지로 점차 물질을 배우는 사람들은 없고 예전에 했던 사람들만이 물질을 계속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해녀의 연령은 고령화의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 2. 문화적 차이와 적응



바깥물질을 하는 해녀들은 물질 나간 곳에서 민가의 방을 얻어서 몇 달 동안씩 생활한다. 한 방을 빌어서 두셋이 함께 자취하며 살기도 하고, 더러는 집주인의 호의로 방세를 내지 않고 살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는 물질을 쉬는 날에 주인집의 농사일을 돕는다. 쌀은 제주도를 떠날 때에 미리 마련해 가며 부식은 된장이 고작이었고, 가끔가다 자기가 캔 전복이나 소라를 다른 것과 물물교환하여 알맞은 부식을 마련하기도 하였다.<sup>28)</sup> 타지에 나와 산다는 것은 현지인들과 문화적으로 이질감을 조성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수반하게 된다. 그것은 현지에 온 이방인의 생활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음 기록을 보자.

1967년 여름 출가해녀를 조사한다고 영일만 일대 구룡포, 대포와 감포,

28) 위의 책, p. 446.

양포 등지로 나갔을 때 현지 해녀와 제주 해녀를 얼른 식별하기란 그리 쉽지 않았다. ‘태왁’을 머리 위에 얹고 바닷가로 떼지어 가는 해녀들의 모습이 이내 눈에 띄었는데, ‘태왁’을 머리 위에 얹는 일이란 제주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다. 제주해녀들이 그곳 풍습에 그대로 젖은 셈이다. 떼지어 바닷가로 향하는 그 일행은 제주 해녀들과 현지 해녀들이 뒤섞인 동아리였다. 머리 위에 물건을 얹은 풍습은 그곳 습관이다. 제주해녀들은 그곳 풍습에 따름으로서 이질감을 없애려 안간힘 하는 모습이었다. 일종의 보호색이라 할까, 그곳 주민들과 함께 융화하려는 뜻이 역력했다.<sup>29)</sup>

물질을 나가서 정착생활을 하려면 현지 주민들과 더불어 살아야 하고 그곳 사람들의 삶의 양식에 적응해야 한다. 그것은 현지 주민들의 삶과 동화되어야 한다는 귀결에 이른다.

물건을 머리 위에 얹는 풍습은 그 대표적인 예가 된다. 현지 주민들과의 생활 속에서 그들이 현지의 풍습을 배워가며 살아간다는 것은 그들이 현지 문화에 동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문화적 동화인지, 아니면 그들이 현지에 살기 위한 전략인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다.

완도에 물질을 나온 제주해녀들을 현지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물었을 때, 31세때(1970년)부터 완도에 정착한 C씨(여, 58세) 첫마디는 “굉장히 천하게 생각하죠”였다. “여기 사람들은 [우리들을] 막 천하게 생각해나수게. 전에는 속옷만 입영하고 오죽 천하게 봐수과게. 다리는 다 불에 그슬린 댕겼덴… 그러나 지금은 많이 인식이 되고 해녀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지. 그때만 해도 사람 취급 안했어요. 우리 앞에서 멸시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우리 생각이 그렇디다. 지금은 그런 것도 없고 굉장히 떳떳해요.” C씨는 바깥물질을 나온 제주해녀들을 현지주민들이 천하게 보았다고 생각하지만 구체적인 멸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이야기하였다. 같은 해녀로서 자신의 생각이 그렇더라는 것은 그녀가 멀리 他地에까지 나와 물질하는 여성임을 인식해서 타인들에게 비취질 자신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없는 때문 인지도 모른다.

---

29) 위의 책, 446쪽.

“지방사람들은, 우리 느낌에, 우리가 천한 직업을 한다 했지, 우리가 괘시를 받거나 그런거는 없었어요. 우리가 이게 천한 직업이다, 다른 남자들은 남자들이 벌어서 먹고사는데, 제주도도 짝어지고 가는게 보통인데, 왜 우리가 짝어지고 다니는가하면 산길을 가기 때문에 이고는 못 다녀, 어려서 이는 것을 안 배워 놓으니까 익숙지 못하니까, 자연스럽게 알아서 바꾸니 짝어지고 다니면, 우리 앞에서 웃고 같이 농담도 하고, 저것들이 우리를 비꼰다 해서 아니꼬고, 제주사람이라고 깔보고 터치하는 건 없고, 우리 자신이 객지에 와서 이렇게 하고 다니는게 민망스럽고.”

제주도에서 제주해녀에 대한 이미지가 천하다는 데에는 그들이 입었던 물옷과 힘든 일을 하기 때문이다.<sup>30)</sup> 그리고 이것을 해녀 자신들은 자신의 과거 기억 속에서 못 살았기 때문에 배운 것이 물질뿐이었기 때문에 이런 자신의 과거 경험으로부터 배태된 것이었다.<sup>31)</sup> 그러나 바깥물질을 나온 제주해녀는 물옷에 대한 관념과 더불어 현지주민들로부터 자신이 천한 직업으로 낙인되는 이유를 풍습의 차이에에서 찾고 있다.

C씨가 예를 든 것처럼 바꾸니를 짝어지고 가는 자신들의 풍습과 ‘객지에 와서’ 산다는 것과 같은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까닭이다. 일상생활에 나타나는 차이는 현지주민들로부터 자신이 소외되고 있음을 알게 되는 순간이다. 이방인으로서 온 C씨는 자신에게 익숙한 문화가 현지의 문화보다 뒤떨어진 문화로 비쳐질 수 있는 것이고 결국 자신은 현지주민보다 낮은 지위의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녀의 이런 생각은 문화의 차이 때문에 생긴 괴리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C씨는 현지를 객지로 생각하고 있다. “남자들이 벌어서 먹고사는” 것이 아닌 자신이 물질하여 살아야 하는 여성이며, 더군다나 객지까지 나와서 물질을 한다는 것이 자신으로서는 부끄러운 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바깥물질을 나왔다 정착한 제주해녀들은 그들 나름대로 제주도 풍습에 따라 제사도 지내고 명절도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제례의 풍습이 육지와 제주가 다름에 따라 “여기 사람들은 [우리가] 제사 때 돌아본다고 웃기도 하였

30) 안미정, 앞의 논문 참조.

31) 위의 논문, p.31.

다”고 완도에서 30년 가량 계속 살아온 K씨(우도출신, 62세)는 이야기하였다. 완도의 풍습은 “명절도 저녁에 하고, 큰아들 작은아들이 있어도 명절을 저녁으로 해먹고 친척집에 모여 댕기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제주 해녀들도 이제는 제사집에 다니는 풍습은 사라지고, 현지 풍습대로 아침에 제사지냈던 음식을 나눠 먹는다고 한다. 여수에서 만난 제주사람과 두 번째 결혼을 한 K씨와 前 남편이 죽은 후 완도에서 산 지 20년이 되는 G씨도 그들 두 번째 남편의 제사는 현지의 방식을 따르고 있었다.

열세살 때부터 물질을 배우며 함덕에 살았던 O씨는 해녀모집 일을 했던 사람이다. 그녀는 완도의 현지여성들이 물질을 하지 않았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였다. “배우질 안헐, 해엄칠 줄을 몰라. 구경 와. 배우젠 하는 사람도 있긴 이서도 안 배워. 좋아하지 않아. 웃어.” 물질 자체도 현지주민들에게는 이질적인 문화로 비추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현지의 여성들도 물질을 배워서 하고 있다. 제례방식은 현지 방식을 수용하여 살아가고 있는 반면, 제주해녀들의 물질은 현지주민들에게 그들이 파악시킨 하나의 생활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 IV. 정착한 해녀의 삶

### 1. 해녀의 가족배경

물질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행위이다.<sup>32)</sup> 왜냐하면 바다 깊숙이 자맥질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해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노동에 대한 대가, 즉 경제적 보상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물으로 바깥물질을 나오는 데에는 경제적 동기가 매우 강하게 작용하였을 것이다. 바깥물질의 경험이 있는 제주의 해녀들은 자신이 벌어들인 수입으로 가게를 꾸려 왔고, 가산(家産)을 일구기도 하였다.

바깥물질 나왔다 현지에 정착하여 살아가는 해녀들은 현재 대부분 고령의 세대들이다. 그들이 정착하였을 때의 나이는 아직 결혼을 하기 전 혹은 결혼을 한 후인 20대 전후였다. 그러나 제주도로 돌아가지 않고 정착한 제주해녀들은 제주에서 물질하는 해녀들과는 다르게 경제적 동기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사실 외지에서 정착한다는 것은 더 많은 비용이 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그들이 현지에 정착한 데에는 그들이 바깥물질을 나온 배경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C씨는 58세로 고향은 서귀포시 용흥동이다. 그녀의 친정은 용흥동이고, 시댁 역시 서귀포시라고 하였다. 그녀의 남편은 작은 각시를 얻었고, 그후 사망하였다. 작은 각시는 아들 셋을 낳았고, 자신에게는 딸이 둘 있었다. 그녀는 “살림을 안 살면서” 물질을 배웠다고 한다. 그때 그녀의 나이는 스물여덟이었다. 물질을 하면서 바깥물질하러 경상북도와 흑산도를 다녔고, 완도는 서른하나에 왔다. “못 사니깐 이렇게 벌어들이고 살라니까, 이걸(물질을) 배워서 밥먹고 살아왔다”고 하였다. 그녀는 남편이 벌어들여 주었으면 “뭘하러 이런걸 합니까?”라고 되물었다.

32) 안미정, 앞의 논문, p. 34.

완도에 오게 된 것은 그녀를 잘 아는 언니가 완도에 한번 가자고 해서이다. 처음에는 그 언니가 완도로 가자고 해도 선뜻 나서질 못했다. 왜냐하면 전라도 바다는 '빨바다'라고 해서 바다 속이 잘 안 보인다고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언니가 "한번 가서 보자, 다 사람 사는 덴데, 딴 사람들은 다 전라도 가는데, 왜 너는 안 갈려고 하나?"라고 하여 한번 따라가 본다는 것이 지금에 이른 것이다. "따라왔다가 산 것이 지금까지 살아 붙었어." 완도에 와서 살다가 그녀는 딸들도 데려와서 함께 살면서 정착하게 되었다.

우도가 고향인 K씨의 "본 남편"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그녀는 닢두리를 통하여 "할머니네영 살명 어머니네도 육지 땡겨 불고 저 육지 청산, 삼천포도 땡기고, 어려서부터 할머니영 살명 밭에 일하고, 또 미역도 조무랑 오고"하면서 그녀는 어릴 적부터 가까이에서 물질을 보고 자랐다. "경헨 배운 것이 해녀를 배왕, 육지는 스물 한 살에 가수다. 저 거제도, 거기 가난 우리 육촌형님 사난, 겨울까지 살명 오지 안으명 해나수다. 그때도 큰 미역해영 부치고." 그녀는 완도로 오기 전에 거제도로 물질을 차주 갔으며 "돈벌러 늘 땡겼다."

결혼은 고향인 우도에서 하였고, 남편은 부산에 있는 한천공장에 다니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그때 그녀는 삼천포에 살았고, 남편과는 "같이 안 살아 봐수다"라며 전 남편에 대한 기억을 떠올렸다. 그런 후 그녀는 여수에 와서 제주도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여 지금 함께 살고 있다. 그렇게 살아온 자신의 삶이 그녀는 "챙피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그렇게 다 험하게들 살았다"고 말하였다. "다 말하젠 허민 한정이 어수다. 역사를 책으로 읽으면... 어떻게 표현을 못허쿠다, 속은 어랑어랑하여도 말주변이 어서 부난."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어머니와 함께 완도로 나온 H씨는 기관장이었던 남편 사이에 6남 1녀를 두고 있었다. 돈벌러 어머니를 따라다니다가 열아홉에 완도로 와서 살게 되었다. 그 당시 돈벌러 육지로 물질 나온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제주도에 살면서 배운 물질을 계속하면서 그녀는 완도에서 결혼을 하였다. 그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완도로 데리고 와서 살다 보니 지금까지 살게되었다고 한다. 그녀의 어머니는 65세까지 물질을 하다

가 66세 되던 해에 돌아가셨다.

그녀는 아들 여섯과 딸 하나를 두었으며, 남편이 기관장을 하여 비교적 잘 살았다고 한다. 수입으로 보자면 배를 타던 남편보다 그녀의 물질 수입이 더 많았다. 용수리에 살던 때와 완도에서의 생활을 말하면서 그녀는 지금도 완도를 “객지”로 이야기하였다.

위의 사례들 중에서 정착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드러나는 것은 남편의 사망, 혹은 아버지의 사망이다. C씨는 남편과 ‘살림을 안 살면서’ 돈을 벌기 위해 물질을 하였다. 남편이 작은 부인을 얻은 후 사망하였고, 그녀는 아는 언니를 통해 바깥물질을 나서게 되었다. K씨는 할머니와 어머니가 물질을 하는 것을 익히 보며 자랐다. 고향에서 결혼한 후에도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같이 안 살아봤던’ 그녀는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후 여수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 재혼하였다. H씨는 어머니를 따라 바깥물질을 다녔고,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어머니와 함께 완도로 왔다. 그리고 완도에서 결혼하여 지금까지 살고 있다. 그렇지만 완도는 여전히 그녀에게 객지이다. 이처럼 남편의 사망(혹은 아버지의 사망)은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바깥물질을 나오게 된 의미 있는 배경이 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 2. 작은 부인으로서의 삶

Y씨는 남원리가 고향인 50세의 제주해녀이다. 부모님이 여관을 경영하며 비교적 유복한 생활을 하였던 Y씨는 지금도 고향인 제주도에 어머니와 오빠들이 살고 있다. 그녀는 “고등학교까지 발도 들었는데, 그냥 영뚱한 데로 쏠려 가지고 고등학교를 중간에 그만두게 되었다”고 하였다. 부유했던 집안이 “좀 안좋아가지고 생활이 안되고 그래서 물질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결혼 전 교회를 다녔고, 그 교회로 ‘해녀모집’을 나온 아저씨가 있어 완도로 나오게 되었다고 한다. 교회에 함께 다니던 아는 언니들과 함께 약 열명 가량이 함께 바깥물질을 하게 되었다. 그때 함께 나온 여성들 중에는

미혼여성이 과반수 이상이었고 아주머니나 이혼녀도 있었다고 한다. 작업을 하여 번 돈을 모집인에게 떼이기도 하였고, 차비가 없어 돈을 얻어 가지고 귀향할 수 있었던 적도 있었다. 그때 돈을 얻어 쓸 수 있었던 것이 계기가 되어 이듬해 완도로 다시 오게 되었다.

남원에서 버스를 타고 제주시까지 와서 다시 제주시에서 진도를 거쳐 소완도로 들어가는 배를 탔다. 그때 그녀의 나이는 스무살이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제주도에서 물질을 많이 하지 않았었다. 선주에게 그녀는 4-6제(해녀가 4할, 선주가 6할)로 계약을 하여 물질작업을 하였다. 그녀는 다시 완도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아 해녀배의 선주와 “살림을 살았기 때문에” 돈을 벌겠다는 욕심은 그다지 없었다고 한다.

“지금 생각해 봐도 돈의 소중함을 못 느낀 것 같고, 어떻게 영중당중 하다 보니 살림이라고 살다보니까 뭐 그렇게 구애받지 않는 생활이 되었고, 여기 와서도 밑바닥 생활도 아니고, 생활하는 데는 괜찮게 생활한거 같은데, 딱 혼자되면서 의지할 데가 없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벌어야지 하는 생각만 가지고, 그전에는 어렵게 생활한다거나 그런 느낌도 없고, 애기 때도.”

바깥물질을 나온 해녀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물질을 하였다는 보편적으로 알려진 사실을 알고 있는지, 그녀는 자신이 그런 돈을 벌기 위해서 물질을 하였던 것이 아님을 내비쳤다. 그러나 아는 언니들을 따라 외지로 나온 그녀가 어떻게 힘든 생활을 하지 않고 견딜 수 있었는가? 그녀는 “성숙하자마자 살림을 살았다”. 그것은 그녀가 벌이로서의 물질을 하지 않았어도 생계를 이을 수 있었던 남편의 수입이 있었음을 뜻한다. 그리고 지금 의지할 데가 없어졌기 때문에 자신이 돈을 벌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그녀는 고등학교를 다 마치지 못하고 잘하지도 못했던 물질을 하러 육지로 나왔던 것일까? 아는 언니들을 따라 바깥물질을 하기 위해 해녀배를 탈 적에 그녀의 집안의 반대는 없었는지를 물어보았다.

“뭐 모르게 나오고, 뭐 그렇게 가라해서 나온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나와서 나 마음대로. 딴 사람들은 좁쌀을 해서 실어주고 보리쌀을 해서 실어주고 했지만... 나는 홀몸으로 나와서 그냥...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 우리 어머니도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생각도 들고, 딴 일에 신경을 쓰고 그

런 것이 지금에 와서도 부모는 안 그럴 테지만 나로서는 친정어머니에 대해서는… [내가] 밑바닥 생활을 살기 때문에… 오늘날 형제간들이 그래서 내가 더 고향에 애착심이 없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자신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 그녀로서는 자신이 물질을 나오게 된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그녀는 그렇게 된 자신의 배경에서 친정어머니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서 지금 자신의 생활을 ‘밑바닥 생활을 하는 인생’이라고 여기며 이것이 고향의 형제들과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이유가 되고 있었다.

그녀는 해녀생활을 밑바닥 생활로 여기고 있는 것 같지 않으나, 자신의 사생활은 밑바닥 생활이라고 여기는 듯 했다. 그녀는 자신이 왜 그다지 돈에 구애됨 없이 생활을 하였으며 일찍 남자와 살림을 살았는지에 관해 이야기했다. “나 같은 경우는 결혼식도 못해보고 애기 아버지, 부인 있는 애기아버지만나 가지고 시집을… 그거 하나 지금 나한테 눈을 감아도 그걸 안고 지승에 가야 한다.”

그녀의 남편 즉 유부남이었던 남편은 그녀가 땀뻘 해녀배의 선주였다. 소완도에서 3, 4개월을 보내고 그녀는 제주도로 돌아가지 않고 “그냥 놀러 앉아” 살게 되었다. 그녀는 “이 아저씨를 만나 가지고” 남들이 다하는 연애 한번 하지 못해봤다고 하였다. 그녀는 줄곧 남편을 “아저씨”라는 호칭으로 말하였다. 결혼식도 없이 그녀는 그냥 살림을 차려 살게 되었다.

“생각지도 못한 살림을 살아져서 마썸. [본부인한테] 구박을 받는다거나 그런 것도 없고, 처음 만날 때나 지금이나 한 동네에서 안 살았기 때문에 안 보일 땐 욕을 했을란가 모른다. 어떨 때에는 [본부인이] 친언니 같이 나를 대해주고. 저 같은 경우는, 나를 구박했다거나 어떻게 싸움이라도 했으면 내 자존심이 강해 가지고 살지도 않았을 거우다. 내 인생관이 달라져 버렸을 거우다… 지금도 그러지만 나는 인정이 많고 마음씨 고운 것은 내가 자랑할 만도 하지만, 제가 또 내 일보다 남의 일에 그렇게 발벗고 나선 것은, 아저씨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냥 강한척하면서도 속은 여린 바가 있어.. 그래서 장애인협회 후원회장도 했었고, 한참 나갈 때는 봉사활동도 다니고, 그래서 그 마음씨 하나 때문에 내가 넘어갔고, 그때 당시 여기 수준으로서는 한글도

모르는 사람도 많았었고, 그래서 아저씨는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지. 내가 인물이 잘난 게 없었고 그때 당시 말은 그렇게 했어요. 뜬소문에 이사람(그녀가 말하는 아저씨)이 [내] 필체 하나에 반했다는 소문까지 들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앉아서 대화를 나눠보니 제가 남달리 괜찮았다, 똑똑했었다고 그랬어요.” 아저씨는 그녀를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영매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미친 사람 같이 자랑을 하였다”고 그녀는 말하였다.

그녀가 유부남인 남자와 살 수 있었던 것은 본부인이 구박이나 싸움이 없이 그녀를 대해주었기 때문이며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그녀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유부남의 작은 부인으로서 살면서도 그녀가 자존심을 내세울 수 있었던 것을 그녀는 아저씨가 자신의 미모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착한 마음과 배운 여성으로서의 필체나 대화가 될 정도의 지식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나도 맨 언니들이랑 놀다 보니까, 대화하는데도 아저씨랑 대화를 해보면 편안하고 나한테도 맞는 것 같고, 이런데 와서 딴 사람들이랑 하면 젊은 총각들이나 그런 사람들 하면 도저히 내가 상대가 안되더라구. 그 아저씨랑은 아저씨도 좀 배운 사람이라 나는 좀 상대가 되고 토론도 되고 그래서 그때도 저희는 살림을 했어도 만나면 얘기거리가 ‘너 잘했네 나 잘했네’하고 그것이 그렇게 정이 들더라구.”

그녀와 아저씨의 나이는 열여섯살 차이였다. 그녀가 처음 배울 타고 바깥 물질을 나왔던 나이가 스무살이고 보면 그 당시 그녀의 아저씨는 서른 여섯살이었다. 1960대에 이런 나이 차이를 가지고서 결혼식도 올리지 못한 채 살림을 살았던 그녀가 어떻게 그 아저씨와 계속 작은 살림을 하면서 살 수 있었을까?

“그래도 우습다는 생각도 없고,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가 탈선기였던가 봐요. 많이 원망도 하고 아버지께 대한 증오도 갖고, 아버지를 미워하드란 말이야. 자기(아들)가 생각하기에는 한 여자의 일생을 망쳐 놓고 일곱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엄마한테는 흠이라고는 없는데 틀림없이 우리 아버지가 엄마를 강제로 그렇게 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아버지를 미워하는

데, 난 그래도 아버지를 원망하지 말라고, 그리니 자기가 알아서 아버지를 안 미워하게 되고, 어머니를 이해하는지는 몰라도 지금까지 한점의 트라블도 없고, 내가 아들 하나는 잘 두었다고 생각하고…” 그녀는 아들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아버지가 자신을 겁탈하여 강제적으로 함께 살았으리라는 아들의 추측을 불식시켜 주었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였던 것은 자신이 아저씨의 강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아저씨를 좋아했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압력에 못 이겨서도 아니고, 처음에는 우리 때만 해도 정조를 목숨보다 더 귀하게 생각할 때였고, 저도 그냥 우리 때만 해도 연애를 한 사람도 많았지만 그런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의 하나인데, 그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되니… 그렇게 강제적으로 순결을 뺏길 때에도 지금 돌이켜보면 이 사람이 마음에 없다가나 하면 저 같은 성격에도 내가 자살을 하면 했지 몸을 뺏기지는 않았을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 조금씩이라도 미련이 있고 좋아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넘어갔지, 인연이 되어서, 눈이 맞아서…” 아저씨가 강제적으로 자신의 순결을 빼앗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강제성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이 자신이 좋아하는 감정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그녀는 아저씨와 자신이 살림을 차리고 산 것을 인연이라는 틀에서 바라보고 있었다.

아저씨와의 만남이 인연이라는 생각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일까? 인연이라는 믿음은 어쩌면 그녀가 살아오면서 지금에 와서 내린 결론인지도 모른다. 만약 그 아저씨와의 살림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그녀의 생애에서 아저씨는 전혀 다른 의미로 말해질 지도 모른다.

“나는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앎고, 그때 당시만 해도 내 마음이 순수했기 때문에, 아, 이렇게 살면서도 늘 계속 끝까지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추호도 없었고, 만나서 좋을 때만 좋은 것뿐이지, 이렇게 자식을 낳고 살지는 몰랐지, 그때 당시는, 잠시 잠깐이었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다시 이런 생활을 안 할 것이고, 이렇게 한참 댄 이런 생각도 많이 가져지대요. 어디 혼자 살면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봉사하면서 살 꿈도 꿔었고, 마음도 먹었는데, 주위에서 안 놓아주니까 또 만나면 좋고, 도망칠려고 해도 충

분히 도망칠 여유도 있었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렇게 그냥 이것이 끝이다 할 때 그 아저씨를 만나지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이미 그때만 해도 그런 생각이 들 때여. 난 이미 이사람과 살아야 될 운명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식을 낳고.” 그리고 보면 그녀가 말한 인연이란 것은 그녀가 도망치려고 할 때마다 나타난 그 아저씨를 ‘어쩔 수 없이 살아야 할 운명’이라고 그녀가 받아들였기 때문인 것이다. 그녀가 받아들인 운명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구박도 많이 받았어요, 처음엔. 저는 성격이 활발해 가지고 혼자 살림을 차렸어도 아저씨랑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아저씨는 그때 당시는 화물선을 했기 때문에 며칠만에 오기 때문에 맨 이런 처녀 총각이랑 성격이 활발해서 같이 놀아요. 그런 것을 목격하면 어느 남자가 좋아할 리가 없지. 지금 생각하면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저 아저씨가 나를 구박을 하고 옷을 갖다가 태워붙고 나를 때릴까 생각을 못했지. 많이 맞기도 맞았지, 옷도 여러 번 태우기도 하고 호강도 많이 받기는 했지만 맞기도 맞았어. 그때마다 또 막상 도망갈라면 또 가서도 그리워지고.

예를 들어서 또 살림을 하면서도 제주도까지 갔었어요. 맘먹고 살아보겠다고 하고. 딱 임신이 되어 갖고 그때 당시 임신이 된 애기가 (지금) 스물 여섯 살. 자기 집이라고 찾아와 보니까 딱 지키고 있더라고 아저씨가. 그때부터 이 애기 봐주고, 나는 헤어날 수도 없고, 인제 어디 갈라해도 나의 힘으로 돈도 못 벌고, 살아야 쓰겠다, 산 것이 지금까지 조금도 이렇게 살면서도 아저씨를 원망해본다거나 이런 것은 지금도 원망하거나 안해요... 그때를 생각해봐도 억지로 당한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내가 좋았고 아저씨가. 이를 주위 사람들이 지금도 아저씨가 억지로 나를 데리고 산 것 같이 생각을 해요. 형제간이라도 내 집안에 그런 어른들이나 그때 당시 나이가 많이 먹어도 조카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봐도 억지로 당해 갖고 일생을 이렇게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전 전혀 없고, 자연스럽게 또 내가 기대한 것인지도 모르고.”

혼자 힘으로 살 자신이 없었던 그녀는 결국 아저씨와의 생활을 택했고, 운명처럼 받아들인 상황을 그녀는 자신이 아저씨를 좋아했고 지금 그것을 인연



이라고 믿음으로써 자신이 선택한 삶이었음을 애써 강조하였다. 한때는 벗어나고 싶어했던 아저씨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아저씨를 좋아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한 남자에 의해서 강제된 삶이 아니었음을 말하였다. 그녀가 그 아저씨를 왜 좋아했을까?

보통 객지에 나가 현지 생활을 하는 여성이 현지의 남자와 결혼하여 정착하여 살게 된 사례들에서 일반적인 결론은 강제적인 결혼과 경제적 구속 때문일 것이라는 가정을 해보게 된다. Y씨는 자신이 그런 강제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좋아했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적 능력 때문이 아니라 자신과 대화가 되었던 지적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현지 남자와 같이 살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Y씨의 이야기는 앞서와 같은 일반적 가정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삶에 대해 해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처음부터 살림을 살 작정이 아니었으며, 아저씨로부터 벗어나지 못해 받아들여지게 된 운명, 그리고 혼자 힘으로 돈을 벌 수 없다는 현실에서 오는 불안 역시 그녀가 아저씨와의 살림을 지속적으로 하게 된 이유들이다.<sup>33)</sup> 그러나 그녀는 그것을 아저씨에 대한 좋은 감정과 돈을 보고 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지적 수준과 영리함 때문에 산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그녀는 남들이 생각하기 쉬운 일반적 가정을 뒤집고 자신의 자존심과 의지를 강조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마무리짓기 전에 이렇게 말하였다. “내 속에는 굉장히 야무지고 영리하고 나도 내 생각으론 하다못해 판사라도 해볼 정도에 두뇌를 갖고 있는데 어쩌다 내가 전승에 죄를 짓고 태어나서 그런가, 이렇게 되서 나도 나름대로의 한번은 이름 석자를 떨치고 싶은 마음이었고, 또 이렇게 혼자 살면서 자유롭게 벌어 가지고 몇 년 전에 망하기 전에는 노후에 편하게 살면서 봉사하고 사회활동도 하다못해 이장이라도 한번 해먹고 그렇게 살 계획이었는데, 돈이 없어지니까, 그런 포부를 갖고 살았어요. 다는 못해도 하다못해 군의원은 못할 망정 이장이라도 한번 해먹어야겠다 했는데 이렇게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

33) 그녀의 생활비는 아저씨가 대주었고 그녀는 물질을 그다지 잘하지도 못하였다고 한다.

그녀가 바라는 삶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수포로 돌아갔지만, 그녀는 자신이 사회적으로 명망을 얻고 능력을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했음을 내비쳤다. 그것이 현실성과는 거리가 있는 희망일지언정 그녀가 말한 꿈은 자신이 일찍 살림을 하고 자신이 좋아했지만 결국 벗어나지 못했던 아저씨와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가 사회적으로 합법적인 관계가 아닌 것 등, 과거 자신의 개인적 불운을 사회적으로 회복하고 또한 인정을 받고 싶은 것이었다. 따라서 그녀의 이야기 전략은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결혼생활(법적인 부부로서가 아닌 관계)에서 겪은 개인적인 고통을 자신의 의지와 능력, 아저씨에 대한 사회적 평판으로 자신을 인정받고 싶었던 것이다.<sup>34)</sup>

### 3. 고향과 객지



완도에 정착한 해녀들의 고향은 제주도이다. 그리고 그들은 고향에 살았던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현지에서 보내고 있다. 그들이 제주도를 왕래하는 경우는 부모의 제사나 형제 혹은 조카들의 경조사 때뿐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현재 사는 곳이 '객지'이다 보니 얼른 나서질 못한다고 하였다.

어릴 적에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부자집이었던 45세의 J씨는 4·3사건 때 이장이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일본에서 유학을 하였던 삼대 독자인 아버지는 6·25때 전사하였다고 하였다. 그 바람에 고조모, 증조모는 화병으로 돌아가셨다. 12살 때, 동생들은 제주도에 남겨두고 바깥물질을 떠나는 어머니를 따라 완도에 와서 살게 되었다. 현재 제주도에 남동생 2명과 여동생 1명이 살고 있으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맘에 있어도 못 갈 때도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제주기도 집도 없고, 친정에 강 살 수도 없고 나 이 먹어 갖고.”

그러나 그녀는 큰딸로서 동생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어왔다. 멀치나 김을

34) 아저씨를 그녀는 그 지역에서 이름 석자만 대면 지금도 모르는 사람이 없다라고 자랑스러워하였다.

사서 보내기도 하고 집을 짓는데 돈을 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나만 못살고, 객지에 살기 때문에 도와줄 수가 없다”고 말한다. 그녀는 동생들에게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도움을 주었으나, 동생이나 올케가 자신의 고마움을 모르는 데에 대하여 섭섭함을 가지고 있었다. “누님 집 지으란 돈 천만원이나 돈 집이니까, 누님 돈 백만원이라도 이거 받으라는 말없이 진짜 염치 좋게 살아라(웃음). [내가] 제주서 살림 안 살고 돈벌어다가 그것들 용돈 주고, 고등학교 시키면서, 고모들은 항상 나한테 너 고맙다. 큰년아 고맙다. 항상 고맙다 소리밖에 몰라.” 그녀는 자신이 제주도로 가지 못함을 집이 없거나 돈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동생에 대한 서운함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녀의 표현대로 그녀는 집을 떠나 객지에 사는 사람이다.

기관장과 결혼하여 6남 1녀를 둔 63세의 H씨는 열아홉에 완도로 왔다. 그녀 역시 제주도보다는 현지생활이 더 오래되었지만 현지를 객지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녀는 같은 고향 사람이 “고순옥의 아들”이라고 찾아온 사람이 있어 돈을 빌려준 적이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20만원을 빌려주고 뒷날 받기로 하였으나 그 사람은 오지 않았다. “누구 아들이여 하니까, 고순옥이 아들이라 하니까, 우리 어릴 때는 고순옥은 알지 우리 동네사람이라” 해서 이름도 안 물어 보고 돈을 빌려주었다.

“한 이십일이 넘었는데 뒷날인가 나한테 와서, 이 언니가 그 소리를 해, 언니 사기당한거 아니? 그랬을까, [그 사람이] 우리 동네 사람이라 한다. [그런데] 삼일이 지나도 안 오지. 지금까지 소식이... 그래서 데려다 준 얼마도 자기 아들이 버스기사니까 그길로 연락을 해봤는데 그런 사람 없네. 전화로만 물어봤지. 나도 돈벌 거 아니면 가서 찾아. 나도 어렸을 때 이모네 집에서 살았거든. 어릴 때 다 알지. 우리 집이 여기면 집 하나 넘어 그 사람이 말한데는 외할망네 집이여. 그러니까 속은 거지... 아들들은 어제야 말했지. 아이야 너 이십오만원 줬다고? 나도 이십만원 줬다고 하니깐 웃드랑께.”

그녀는 같은 동네사람이라는 이유로 모르는 사람에게 20만원을 그리고 똑같은 사람에게 아들은 25만원을 사기 당했다. 그리고 사기 당한 사실을 알고서도 그녀는 ‘적선했다’고 하고 생각하기로 했다. 그녀가 이름도 물어보지 않고 돈을 빌려주었던 것은 단지 고향사람,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의 아들이

라고 그 사람이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녀와 그녀의 아들이 믿었던 고향사람이라는 그 사람은 고향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기 당했다는 사실보다 '고향사람'이어서 믿었던 그녀와 그 아들을 통해 그들이 객지에서 만난 고향사람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였던 사실에 있다.

46세의 G씨도 완도에 온 지는 20년이 넘는다. 제주도에서 결혼하여 남편이 병사하자 스물 여섯에 완도로 와서 살게 된 것이 지금까지이다. 그녀는 해녀를 모집하던 해녀배를 타고 나온 것이 아니라 '자유로' 나왔다. 그때 당시 함께 나왔던 동료들이 서너 명이었다고 한다. 그녀와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은 모두 결혼을 한 사람들이었다. 그때는 제주해녀들이 많았다고 한다. 처음부터 육지에서 살겠다고 제주도를 떠나 왔다. 그녀는 바깥물질을 나온 후 현지의 농부와 다시 재혼을 하게 되었다. 그 남자는 유부남이었고 아기도 있는 사람이었다. 결혼식은 올리지 못했다. 재혼한 남편과 5년 전 사별한 그녀는 두 번째 남편과의 사이에 딸 둘을 두었다. 그녀에게 시댁이 어디인지를 물어보았다.

“여기 시댁은 어수과? 시댁엔 자주 안감수과?”

“여기 시댁이사 시댁이라? 제주시가 시댁이주마는.”

그녀에게 시댁은 제주시뿐이다. 완도에 있는 시댁을 시댁으로 인정하지 않음은 그녀가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재혼한 처지여서 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그녀는 시댁이 제주도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 남편의 제사도 본부인의 자식인 큰아들이 지내고 있다. 두 번째 남편의 시댁은 완도에 있으며, 그녀는 본부인을 만나기도 하지만 잦은 왕래를 하는 편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이 벌어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처음부터 물질을 하며 돈을 벌었고, 농사를 짓던 완도의 남편으로부터는 어떤 도움도 받은 것이 없다고 하였다. 그 남편에 대해 그녀는 어떻게 생각할까?

“그 사람은, 이런디 사람들, 육지놈들... 그 사람 조금도 생각 안나요.” 그녀는 그 남편을 “그 사람”이라는 호칭으로 불렀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그 남편에 대한 불만스러움이 배어나는 어조로 말을 하며 “육지놈들”이라는 한마디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남편에 대한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줬다. ‘육지

놈'들이란 말은 제주도 사람들이 육지사람들을 가리켜 육으로 혹은 나무라면서 하는 말이다. “나 번 것 갖다 썼지, 도움 받은 것 없어요.” 그녀의 말속에서 남편은 오히려 그녀의 물질소득을 앗아간 사람으로서 착취자의 인상마저 풍기고 있다. 그렇다면 그녀는 왜 그런 남자의 작은 부인으로 계속 완도에 남아 생활을 하였을까? “자기 부모들이나 있으면 가고 싶거나 하지만 다 돌아가버리고… 제주갈 마음이 없습디다요.” G씨의 경우는 완도에 정착한 여느 해녀들과 마찬가지로 남편의 사망이 결정적으로 그녀를 현지에 정착케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그녀의 재혼은 남자가 제안한 것이었다. “남자가 곧주로 하자 그런게, 할 수 없이” 같이 살게 되었다. 그녀는 그남자를 “원한 것도 없고 (그남자가) 못살게 그리니까” 재혼을 하게 되었다. 그 남자를 소개해준 사람은 같은 동네의 완도 여자였다. 본부인이 있는 남자를 소개한 완도 여자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알 수는 없으나, 다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사례가 비교적 적지 않았으리라는 것이다.

G씨는 첫 번째 결혼을 제주시 사람과 했다. 자신의 시댁은 제주시라고 말했던 그녀는 자신의 제사도 “본 시집”에서 조카가 지내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첫 번째 남편 동생의 아들을 양자로 삼았기 때문이다.<sup>35)</sup> 제주도에서는 작은 부인(첩)이 사망해도 아들이 없을 때면 본처의 아들이 제사를 지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긴다. 이렇게 하여 그녀는 자신이 제주도 사람임을 확인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녀에게 제주도는 단순히 고향의 의미만이 아닌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곳이기도 한 것이다.

사실 그녀는 제주도에서 살았던 기간보다 완도에서 산 기간이 더 오래되었다. 그럼에도 그녀는 완도가 아닌 제주도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말하였다. “호적이 거기가 있는데, 나 호적이… 죽으면 귀신이 가져갈라고… 호적이 다 거기 갔는데… [여기서는] 고생한 것밖에 다른 것 없어요.” 그녀는 두 번째 남편이 노름을 하고 윗도 잘하는 사람이었으며, 자신에게는 “성

35) 첫 번째 남편은 큰아들이었고, 그녀가 양자로 삼은 조카는 그 남편의 바로 밑 동생의 아들, 즉 조카였다. 그 조카가 자신과 죽은 첫 번째 남편의 제사를 지내게 되는 것이다.

가신(귀찮은)” 사람이었다. 그래도 좋았던 기억이 있을 법한데, 그녀는 “좋은 건 하나도 없어요”라고 단정지어 말했다. 그녀 역시 그 남자에게서 도망간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도망가면 어디갈 자, 그런 생각 안 해봤다”고 하였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그 남자를 좋아해서 함께 살았던 것은 아니다. 그리고 본부인과 그녀의 관계에 대해서 그녀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자신이 원하지 않은 그 남자에게서 그녀는 벗어나고 싶은 생각은 있었지만, 그것보다 집을 떠나 혼자서 살아갈 걱정이 앞섰다. 첫 번째 남편과의 사별 그리고 나서 재혼은 그녀에게 오히려 무거운 짐인양 느껴진다. 완도에서의 남편과 시댁은 그녀에게 잠시동안의 생활일 뿐 그녀는 자신의 호적을 옮기지도 않은 채 죽어서도 제주도 시댁 귀신이 되고 싶어하는 생각이 강하게 배어났다.

G씨는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힘들게 이야기했다. 그 삶이 남의 눈에 어떻게 비쳐지리라는 것을 염두에 두었고 또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장 간략한 언어만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가급적 드러내지 않으려 하였다. 이것이 그녀가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그녀가 택할 수 있는 이야기 전략이었던 것이다.

## V. 결 론

바깥물질을 하러 다니는 제주해녀들은 일시적으로 섬 밖으로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오는 대표적인 계절 임시노동자(seasonal casual laborer)들이다. 제주해녀들은 교통수단이 잘 발달하지 않았던 과거에도 물질을 하러 육지를 빈번히 왕래하였다. 제주해녀들의 바깥물질은 제주도의 지역경제에 큰 기여를 해왔으며, 물질이 흔하지 않았던 현지에 물질 기술을 보급하면서 해녀문화를 전파해 왔다. 또한 제주해녀들 중에는 3개월 체류허가가 나는 친척 방문비자를 가지고, 심지어는 15일 짜리 관광비자를 가지고, 때때로 일본까지 물질하러 가는 사람들도 있다.<sup>36)</sup>

복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주해녀들은 바깥물질을 나갔다. 해녀를 모집하는 모집인이나 바깥물질을 자주 다녔던 사람이 권유하여 바깥물질을 하다가 대부분은 일을 마치면 귀향을 한다. 그러나 어떤 해녀들은 현지에 그대로 남아 정착하여 살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바깥물질을 하던 완도에 그대로 남아 정착한 제주해녀의 삶을 생애사를 통해 살펴보았다.

완도에 정착한 제주해녀들은 남편이나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 바깥물질을 떠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현지에 정착하게 된 것은 고향에 돌아와도 가장이 없는 가족배경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물론 Y씨처럼 집안형편이 어려워지자 부모 모르게 바깥물질을 나왔다 정착한 사람도 있었다. 바깥물질 같이 계절적인 임시노동을 하러 섬 밖으로 떠나는 제주사람이 많은 것은 제주도 가족의 특성과 관련된다. 일반적으로 육지부 가족에 비해 제주도 가족은 가족집단의 결속력이 약하다.<sup>37)</sup> 가족원들이 뿔뿔이 흩어져 사는 것이 제주사람들에게는 그리 낯선 풍경이 아닌 것이다. 크게 제주인이라는 포괄적인 전체집단으로는 결속력이 강하나, 가족 등 단위집단으로는 결속력이 약한 제주사회구조의 특성은 제주해녀들이 섬 밖에서 일시적으로 체류하거나 아예 정착하여 돈을 벌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것이다.<sup>38)</sup>

36) 유철인, "재일 제주인과 제주도", 1998.

37) 김혜숙, "제주도 가정의 혼인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38) 유철인, "재일 제주인과 제주도", 1998.

바깥물질을 하던 현지에 그대로 정착해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제주해녀들은 육지와 제주간의 문화적인 차이를 경험하게 된다. '식계를 먹으러 간다'는 표현처럼 제주도에서는 다른 집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완도에 정착한 제주해녀들은 처음에는 제주도 풍습에 따라 동네제사에 참가하다가, 나중에는 현지 풍습을 따르게 된다. 그러나 바구니를 등에 지고 가는 것은 몸에 밴 행동이라 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가는 현지 방식을 따르지 않고 있다. 바구니를 등에 지고 가면, 그 사람이 제주사람이라는 것이 현지에서 금새 드러나게 된다.

현지에서는 '작은 부인'이라 일컬어지는 첩으로 살아온 제주해녀가 많다. 첩으로 살아온 자기 인생을 이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Y씨와 G씨의 생애사를 통해 살펴보았다. Y씨의 삶은 남편이 첩을 부양하는 육지의 생활양식에 어느 정도 부합되는 삶을 살아왔지만, G씨의 삶은 작은 부인이 스스로 생계를 이어가는 제주도의 생활양식을 보여준다.

Y씨는 남편에 대해 대화가 통했고 자신이 좋아했던 사람이라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초기에는 남편에게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첩이라는 현실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남편과의 관계를 인연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또한 본부인의 자식들과 자신이 낳은 아들의 관계가 원만하다는 이야기와 죽은 남편이 지금도 지역에서는 명망있는 사람으로 자신도 좋아했던 사람이라는 이야기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반전시키는 전략이 드러났다. 이렇게 자기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그녀가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고 해석하는 방식인 것이다.

Y씨와는 달리, G씨는 현지의 남편을 고생만 시킨 '성가신 사람'으로 말하였다. 그녀는 남편과 현지의 생활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맺어진 남편과의 관계를 결국에는 체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조카를 양자로 삼고, 호적이 있는 본래의 시택으로 죽어서라도 귀신으로나마 돌아가겠다는 그녀의 의지가 지금까지 첩으로 살아온 자신의 삶을 체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였다. 특히 사후에 두 번째가 아닌 첫 남편의 부인으로서 제주에 간다는 것은 그녀가 택한 최선의 문제해결 방



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녀는 자신이 살아온 현실의 삶을 사후에 해결하려는 것이다.

완도에 정착한 제주해녀들은 대체적으로 현지 풍습에 적응하면서 살고 있지만,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터를 고생한 것밖에 없는 '객지'로 인식하고 있는 그들의 이야기에서 자기네들은 여전히 제주사람이라는 것을 힘주어 표현하고 있다. 고향에 가고 싶지만 객지에 살아서 쉽게 가지 못한다는 이야기, 현지에서 만나 같이 산 두 번째 남편을 "육지사람"이라고 욕을 하는 것, 자기의 시댁은 제주시에 있는 첫 남편의 집이라는 것, 죽어도 자신의 귀신은 호적이 있는 제주도 시댁으로 갈 것이라는 것 등의 이야기에서 꿈에서밖에 가볼 수 없는 고향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잘 드러났다.

이야기한 주체의 입장에서 완도에 정착한 7명의 제주해녀들의 생애사에 나타난 그녀들의 삶을 요약한다면, 그녀들은 끊임없는 물질작업 속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천한 사람으로 취급되면서 현지에 잘 적응하지 못한 주변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많았다. 처음에는 목돈을 벌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완도에 체류하면서 바깥물질을 하다가 전도금이라는 "굴레" 속에서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현지남자의 작은 부인으로 눌러 앉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죽어서라도 고향으로 돌아오겠다는 사람뿐만 아니라 완도에 살고 있는 제주해녀들은 모두다 자신의 삶을 운명이라고 체념하면서 살고 있음을 그들의 생애사는 잘 보여주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완도에 정착한 7명의 제주해녀들의 생애사를 통해 그들의 삶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이들의 삶이 바깥물질을 떠났다가 정착한 모든 제주해녀들의 삶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그것은 본 연구의 목적이 해석적인 틀을 가지고 생애를 이야기한 주체의 눈으로 그리고 그녀가 살아온 위치에서 그녀의 삶을 이해하려는 것이지,<sup>39)</sup> 일반화를 추구하려는 데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째, 생애사 연구방법의 핵심은 구술하는 사람의 경험과 연구자에게 털어놓은 이야기의 내용에 의존하게 되므로, 구술한 연구대상자의 삶 전체를 포괄적으로 담아내지 않고 있다. 즉 어떤 것을 기억해내고 어떤 것을 다른 사람에게

39) 유철인, "생애사 연구방법", 1998.

이야기한다는 것은 선택적인 것이므로, 40)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가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하였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

40) 윤택림, “기억에서 역사로”, <한국문화인류학>, 제25집, 1994.

## 〈참 고 문 헌〉

- 김영돈 외, [제주의 해녀], 제주도, 1996.
- 김혜숙, “제주도 가정의 혼인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 안미정, “제주해녀의 이미지와 정체성”, 제주대학교 사회학 석사학위논문, 1997.
- 유철인, “생애사와 신세대타령: 자료와 텍스트의 문제”, [한국문화인류학], 제22집, 한국문화인류학회, 1990, pp.301-308.
- ....., “생애사 연구에 있어서의 사회의 역사와 개인의 삶의 문제”, 제26차 한국문화인류학회 전국대회 발표논문집, 1994.
- ....., “어쩔 수 없이 미군과 결혼하게 되었다: 생애이야기의 주제와 서술전략”, [한국문화인류학], 제29집 2호, 1996, pp. 397-419.
- ....., “물질하는 것도 머리싸움: 제주해녀의 생애이야기”, [한국문화인류학], 제31집 1호, 1998, pp. 97-117.
- ....., “재일 제주인과 제주도”,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학술세미나 <해외동포사회의 현재와 미래> 발표논문, 1998.
- ....., “생애사 연구방법: 자료의 수집과 텍스트의 해석”, [간호학탐구] 제7권 1호, 연세대학교 간호정책연구소, 1998.
- 윤유녕, “Toward reviving the myth of woman’s land”, 제1회 심학술회의 발표논문, 제주 KAL호텔, 1997. 11.
- 윤택림, “기억에서 역사로: 구술사의 이론적, 방법론적 쟁점들에 대한 고찰”, [한국문화인류학], 제25집, 1994, pp.273~294.
- 윤형숙, “생애사 연구의 발달과 방법론적 쟁점들”, 배종무총장퇴임기념 [사학논총], 1994, pp. 515~530.
- 이지치 노리꼬, “제주도에 살았던 이야기”, 제주대학 사회학과 대학원 콜로키움 발표문, 1997.
- 제주도, [제주도지], 제2권, 1993.
- 황석규, “도시내 상층이주민의 적응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아리스에 겐, “생활사 연구의 시각”, [일상생활의 사회학], 박재환,  
일상성·일상생활연구회편, 도서출판 한울, 1994

Denzin, N., *The Research Act*. Third edition.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89.



## 감사의 글

10여년 이상 방송일에 종사해오면서 매번 프로그램을 만들 때마다 내 자신의 지식이 부족함을 느껴오곤 했다. 겉으로 드러난 현실을 이해는 하지만 그것들을 묶고 해석하는 학문적인 토대가 없기 때문이리라. 좀더 나은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학문적인 배경을 스스로 쌓아가야겠다는 생각을 늘 하다가 늦은 나이에 대학원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번 제주해녀에 관한 논문이 나온 배경도 바깥물질을 나간 제주해녀들을 방송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기 위해 취재를 하면서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욕심 때문이다. 대학원에서 배운 나름대로의 연구 틀을 갖고 새롭게 현지조사를 해서 부끄럽지만 그나마 석사논문으로 쓰게 되었다.

그간 실력이 부족한 나를 위해 4년 동안 밤늦게까지 강의를 해주신 사회학과 교수님께 감사를 드린다. 특히, 이 연구를 마칠 수 있도록 생애사연구방법론을 제시해주신 유철인 교수님께 감사를 드리며 안미정 학우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그러나 대학원 수업 때문에 항상 잠자는 모습밖에 볼 수 없었던 이정, 호정에게도 미안한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그러나 언젠가 내 아이들이 이 글을 읽고 아빠보다 더 훌륭한 논문이 나오기를 기원해본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아내의 도움이 무척 많았다. 직장과 대학원으로 분주한 생활을 하는 가장을 대신해서 집안 살림을 잘 꾸려나가고 정성어린 내조를 영원히 기억하고 싶다. 같이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성엽, 경호형에게도 그간 술벗이 되어드리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들고 형제들, 그리고 직장동료들에게도 마찬가지로의 생각이다.

앞으로 아쉽고 부끄러운 논문의 결실을 위해 꾸준하고 진지한 자세로 프로그램 제작을 하면서 좀더 나은 글을 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세우면서 글을 마친다.